

그림과 이야기가 함께 하는 피아노 음악 감상 방법 연구

황 영 미

I. 서론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경험이 풍부해 지면 지적 성취와 심미적 인식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Paul Eggen & Don Kauchak, 2011, p. 446)고 하였다.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미술관을 찾고 음악회를 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들을 때처럼’ 화가나 작곡가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재훈은 “우리는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융합’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동시에 단순히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 학문과 기술, IT는 물론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응용되고 있다”(최정주·황영미, 2017, p. 6)고 하였다. 미술, 음악, 문학은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발전해왔다. 석혜(2014, p. 1)는 “특히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미술, 음악, 문학 간의 교류 및 융합 경향은 더욱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융합교육의 시대를 맞아 그림, 음악,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합한 음악 감상 방법을 제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II. 본론

그림과 이야기와 함께 하는 피아노 음악 감상 방법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그림과 음악, 성경구절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가브리엘 메추 (Gabriel Metsu, 1629-1667)의 <아픈 아이> 그림을 살펴보고, 그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 혹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탐색한다. 더불어 피아노 음악인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골드베르크 변주곡Goldberg Variation, BWV988>중 아리아와 연계해서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그림과 이야기,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서 주는 감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그림, 음악, 성경이야기의 융합

그림을 감상하며 음악을 듣고 성경이야기를 생각하기에 유용한 그림과 음악, 성경구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그림	음악	성경구절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중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이든	창세기 1: 27~28
<바벨탑> 브뤼헬	<볼레로> 라벨	창세기 11: 3~4
<왕의 슬픔> 마티스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 헨델	시편 51:1
<수태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베마리아> 바흐/구노	누가복음 1:28
<마태를 부르심> 카라바조	교향시 <핀란드어> Op.26 시벨리우스	마태복음 9:9
<씨뿌리는 사람> 밀레	<라데츠키 행진곡>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마태복음 13:7~8
<선한 사마리아인> 고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마스카니	누가복음 10:30~33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 벨라스케스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모차르트	누가복음 10:41~42
<탕자의 귀환> 램브란트	<사랑의 인사> 엘가	누가복음 15:31~32
<갯세마네의 기도> 만테냐	<템페스트> 3악장, 베토벤	마가복음 14:36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 본 것은> 티소	<칸타타 BWV 147> 바흐	누가복음 23:27~28
<아픈 아이> 메취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 중 '아리아' 바흐	말라기 4:2

출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2. 피아노작품, 그리고 그림과 성경이야기가 융합된 음악 감상 방법의 예

1) 가브리엘 메취의 <아픈 아이>

네덜란드의 풍속화가 메취는 일상의 잔잔함이 담긴 가정생활, 거리풍경 등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사실에 충실한 그림을 그렸으며 풍부한 색채로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려 네덜란드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다.(최정주·황영미, 2017, p. 137). 그 가운데 <아픈 아이>를 통하여 화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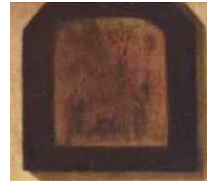
아픈 아이, 가브리엘 메취, 캔버스에 유채, 1660 ~ 1665, 27.2 x 32.2cm,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메취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 축 들어간 눈, 축 늘어진 맨발의 모습과 그 아이를 쳐다보는 어머니의 무거운 표정을 그리면서도 회색 배경에 밝은 색깔이 대비되며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켄가이어(2000, p. 126)는 “고흐(Vincent van Gogh, 1886-1888)는 음악이 위안이 되듯 나는 그림으로 뭔가 위안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고흐처럼 메취도 그의 그림에 아픈 아이의 애처로운 표정과 마음 아픈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화려한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암스테르담에 돌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아이에도 무엇이라도 먹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탁자 위에 놓은 반짝이는 죽 그릇에서도 긍정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림의 뒤쪽 위에 걸려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림은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부활하실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반짝이는 죽그릇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림

김영숙(2013, p. 54)은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은 소소한 일반인들의 유행하던 풍속화를 그리면서도 그림 속에 그림을 넣어 그 주제를 은근히 암시하곤 하였다”고 한다. 두터운 테두리로 강조되어 더욱 눈길을 이끄는 예수님의 그림은 그들의 삶에 성경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성경 이야기

성경에는 이러한 아픈 아이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가 일어나 밖에서 신이 나게 뛰어 노는 모습 일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누가복음 5:15)”의 내용과 같이 병자가 치료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능력의 예수를 생각하며 아픈 아이가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2)”는 성경 구절은 희망을 갖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을 더해준다.

그러한 아픈 아이와 간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곡으로 바흐의 제자 골드베르크의 부탁을 받아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카이저링크 백작을 위해 작곡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선택하여 보았다.

3)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988>중 아리아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사라방드 풍의 아리아를 주제로 하여 30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주곡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중 아리아 1-8마디

3박자의 느린 춤곡인 사라방드 풍의 아리아에서 주로 순차적으로 하행 진행하거나 상행 진행 하는 묵직한 베이스의 선율은 듣는 이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왼손 베이스 선율에 덧붙여진 멜로디는 화려하게 장식된 꾸밈음을 사용하면서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 곡은 반복하는 2부분 형식으로 되어있다. 반복하여 연주할 때에는 꾸밈음에 변화를 주어서 연주자에 따라 꾸밈음을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주한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할 때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꾸밈음 연주의 차이점을 찾으려 하며 듣는 것도 감상에 흥미를 더하게 된다.

이 곡의 화성은 주요 3화음이 주로 사용되었고, 4마디 간격으로 반중지와 정격중지로 되어있어 프레이즈 구별이 뚜렷하므로 매우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 편안히 잠들 수 있게 작곡된 이 곡은, 메취의 그림 속 아픈 아이와 그 아이를 간호하느라 몹시 지쳤을 엄마에게 뿐 아니라, 여러 고단한 일들로, 마음의 짐들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에게도 귀할 만한 곡이다.

III. 결론

그림 속에서 화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활동과 이야기를 끌어내고 구체적으로 음악을 듣는 일련의 과정은 예술을 통해 창의력, 상상력, 공감능력, 관계 능력 등을 증진 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유용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도 갖게 된다.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하고자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림과 음악을 찾고 이야기를 엮어 가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와 음악을 즐기며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숙(2013). **네덜란드/벨기에 미술관 산책**. 서울: 마로니에북스.
김영준(2015). **그림 속 성경이야기**. 서울: J&jj.
석혜(2014). **음악·문학과 의 융합을 통한 미술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영우(2006). **음악으로 변주된 성경**.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최정주·황영미(2017).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서울: 세광마스터피스.
Ken Gire(2010). **영혼의 창**.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Paul Eggen, Don Kauchak(2011). **교육심리학**. 신중호외 6인 역. 서울: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